

요 약

● 고용보험 적용 현황

<고용보험 사업장 및 피보험자 현황>

- 임금근로자수 대비 고용보험 적용률이 46.5%로 상승

1999년 12월 31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수는 약 601천개이며, 피보험자수는 6,054천명이다. 또한 총취업자수가 20,614천명이고 임금근로자수가 13,024천명이므로 총취업자의 29.4%, 임금근로자수의 46.5%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 1999년 6월말에 비해 사업장수는 5.4%, 피보험자수는 3.6% 증가

1999년 하반기의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수는 전년동기인 1998년 하반기 현재의 400천개와 5,268천명에 비해 사업장수는 50.3%, 피보험자수는 14.9% 증가하였다. 또한 전반기인 199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사업장수는 5.4%, 피보험자수는 3.6%가 증가하였다. 1999년 하반기의 사업장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53,555개가 신규로 성립된데 비해 21,335개가 소멸되어 동 기간내 30,646개 사업장이 순증가하였다. 한편 1999년

하반기의 피보험자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1,557천명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1,553천명이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여 동 기간내 210천명의 피보험자가 순증가하였다. 이 중 남자가 123천명, 여자는 85천명이다.

<피보험자격 취득자 현황>

- 고용보험자격 신규취득자 51만명, 재취득자 68만명

1999년 하반기 취득자 119만명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경험 유무별로 살펴보면, 재취득자는 57.1%인 68만명으로 나타났으며, 신규취득자는 42.9%인 51만명으로 나타났다. 피보험자격 재취득자 중 사업장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 되어서 취득한 자는 51천명이었고, 신규취득자 중 그와 같은 사람은 23천명이었다. 보다 자세히 신규취득자를 분석해 보면, ①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경우(학교 및 훈련기관의 졸업 이후), ② 고용보험 비적용사업장에 근무하다가 적용사업장이 된 경우, ③ 1개월 미만 일용직 등 적용제외 종사상 지위에 있다가 고용지위 변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④ 노동시장 신규진입자는 아니지만 노동시장 경력에서 신규로 고용보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취득자 규모는 ①의 경우 약 10만명, ②는 약 0.3만명, ③은 약 4만명, ④의 경우는 약 37만명으로 나타났다.

- 취득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남자 1,028천원이었으며, 여자 716천원

월평균 급여액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가 1,028천원이었으며 여자의 경우 716천원으로 나타나 자격취득자의 성별 월평균 급여액 격차는 312천원이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중 신규취득자를 제외한 재취득자의 월평균 급여액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성별에 따른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연령별로는 40~49세 연령층에서 성별 월평균 급여 격차가 가장 컸으며,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과 대학원 졸업 이상의 계층에서 성별에 따른 월평균 급여의 차이가 큰 것으로 집계되었다.

- 피보험자격 재취득자의 재취득 소요기간 75.3일

재취득자 52만명의 재취득 소요기간은 평균 75.3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의 재취득 소요기간이 77.7일로 남자보다 다소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20~24세의 재취득 소요기간이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력별로는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재취득 소요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졸 제외), 특

히 대학원 이상이 53.3일로 다른 학력계층에 비해 현저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보험자격 상실자 현황>

- 전반기에 이어 비자발적 상실자 비중 감소

1999년 6월말 현재 고용보험적용 피보험자 5,844,018명을 기준으로 볼 때 1999년 7~12월 사이에 고용보험자격을 상실한 근로자는 1,319,091명이다. 6개월 동안 전체 피보험자 대비 22.6%가 이직한 것으로 나타나 1999년 상반기(16.4%)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률이 크게 높아졌다. 이와 같은 상실률의 증가를 주도한 것이 1999년 상반기에 비해 크게 증가한 자발적 이직자수인데, 상실사유 측면에서도 그 비중이 약 8% 증가하였다. 상실자 중 763천명(73.5%)이 개인적 사정, 전직 등을 위한 자발적 이직으로 나타났고, 268천명(25.8%)이 권고사직, 정리해고, 폐업·도산,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자로 나타났다.

- 비자발적 상실자의 75.3%는 근속기간 2년 미만

1999년 하반기에 비자발적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채용일로부터 6개월 내에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우가 27.3%, 6개월~1년 미만이 21.8%, 1~2년 미만이 26.2%로 비자

발적 상실자의 75.3%가 2년 내에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발적 피보험자격 상실자의 경우 6개월 미만이 45.2%이며 2년 미만은 84.8%에 이르고 있어 자발적 상실자의 이전 직장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 잠재적 실업급여 수급자가 피보험자격 상실자의 21%

실업급여 수급가능 피보험기간이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후 피보험자격 상실시기까지 누적된 피보험기간으로서 이번 피보험자격 상실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소정급여일수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주는 피보험기간을 말한다. 1999년 하반기에 비자발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이직자 중 실업급여 수급가능 피보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19.4%, 6개월 이상인 경우가 80.6%로 나타났다. 후자를 잠재적 실업급여 수급자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약 217천명으로서 동 기간 전체 피보험자격 상실자의 21%에 해당한다.

● 고용보험사업 추진실적

- 1999년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은 88.5%로 전년대비 30.5% 감소

1999년의 전사업 보험료 합계는 1조 7,474억원으로서 1998년에 비해 7,901억원

증가하였다. 이러한 보험료 증액은 1999년 1월의 고용보험료 인상과 1998년 10월에 실시된 전사업장으로서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기인한다. 한편 전사업의 지급액 합계는 1조 5,458억원으로서 지난 해에 비해 4,064억원 증가하였다. 절대액으로 보면 직업능력개발(1,672억원), 실업급여(1,510억원), 고용안정사업(882억원)의 순이지만 증가율로 보면 고용안정사업이 91.3%의 증가세를 보여 가장 크게 성장했다. 1999년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의 전사업 평균은 88.5%로서 IMF 구제금융시기 직후였던 1998년의 119.0%에 비해 30.5%포인트 감소했다.

<고용안정사업>

- 이전과는 달리 고용안정사업의 활용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활발

고용안정사업을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122.45%), 5~9인 사업장(62.84%)의 활용이 가장 활발하였고, 500~999인 사업장(6.83%)에서 가장 활용이 저조하였다. 규모별로 추이를 보면, 1998년 하반기까지는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1999년 상반기로 오면 전규모의 사업장에서 고른 활용도를 보이게 되고, 하반기에는 오히려 소규모 사업장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채용장려금 및 고용촉진장려금의 활용이 상반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

1999년 하반기의 고용안정사업별 지원비중을 살펴보면, 사업장 숫자로 볼 때 고용안정사업을 활용한 총 22,946개소의 사업장 중 채용장려금을 50.8%(11,650개소)의 사업장이 활용해 가장 활발한 이용실적을 보였고, 그 다음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40.7%(9,334개소)의 사업장이 활용했으며,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3.3%(768개소)의 사업장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능력개발사업>

- 1999년의 연간 지원금액 4,249억원으로 전년대비 64% 증가

1999년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총지원금액은 4,249억원으로 1998년의 2,580억원에 비하여 64%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지원사업장이 1998년의 18,080개소에서 58,288개소로 크게 증가했으며, 지원피보험자는 1998년의 59만여명에서 98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1999년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액은 실업자재취직훈련에 전체 금액의 72.1%인 3,062억원이 지급되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9.5%인 829억원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훈련인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피보험자가 86만명으로 81.4%를 차지하여 가

장 높았으며, 실업자재취직훈련이 16.1%인 17만여명으로 나타났다.

- 대규모 사업장의 자체향상훈련 증가

1999년 하반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구분에 따른 지원사업장수는 총 17,516개로 향상훈련이 전체의 99%를 차지하여 양성훈련과 전직훈련을 실시한 사업장이 매우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향상훈련 중에서도 위탁훈련이 93.5%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지원인원수를 살펴보면, 오히려 자체향상훈련에 참여한 인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향상훈련을 실시하였기 때문인 것이라 하겠다.

- 실업자재취직훈련의 평균훈련기간 5.1개월, 평균수당 10만원

1999년 하반기의 실업자재취직훈련수당과 훈련비용은 총 1,467억원으로 집계되었는데, 훈련수당으로 366억, 훈련비용으로 1,101억이 지급되었다. 연령별로는 25~29세 연령층에서 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훈련참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30~39세 연령층이 29.3%, 20~24세 연령층이 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업자재취직훈련생의 학력은 고졸이 5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전에 근무했던 직장의 업종분포는

제조업 45.6%, 부동산업 11.3%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훈련기간은 5.1개월로 연령이 낮을수록 훈련기간이 길었으며, 매월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평균 100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 전반기에 비해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5만 2천명, 지급액은 1,662억원 감소

1999년 하반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자(이하 실업급여 신청자)는 약 138천명으로 상반기의 190천명에 비하여 52천명 정도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감소추세는 일시적 증가를 제외하고는 1999년 1월 이래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한편 1999년 하반기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3,848억원으로 상반기의 5,510억원에 비해 1,662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감소추세 역시 1999년 3월의 1,018억원을 정점으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데 12월에는 512억원에 그치고 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자의 절반 가량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이직자

사업장규모별로 3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이

직한 실업급여 인정자 비율의 급증추세가 현저하다. 1998년 하반기에 16.3%이던 것이 1999년 상반기에는 32.2% 증가하더니 1999년 하반기에는 45.8%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5인 미만의 경우 5.6%에서 15.3%로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정자수도 두 배로 늘었다. 그러나 임금수준이 낮아 사업장규모별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금융 및 보험업과 광업의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이 최고

1년간의 보험료 대비 지급액을 통해 업종별 상대적인 실업급여 활용정도를 살펴본 결과 금융 및 보험업이 145.1%, 광업이 143.2%로 가장 높고,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숙박 및 음식업이 76.5%로 가장 낮았다. 1999년 실업급여의 상대적 활용정도를 1998년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졌는데, 피보험자수 대비 수급자수 비율은 약 4%,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은 약 46% 줄었다.